

‘마감’과 ‘마무리’



신 현 목*

1. 朝鮮語 시간

지금으로부터 56, 7년전, 그러니까 내가 國民學校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다. 당시는 日帝가 內鮮一體를 내세워 우리民族文化의 말살을 기도하면서 이른바 皇民化교육에 광분할 때였다. 日語를 國語라 하였고, 우리글, 우리말은 “朝鮮語”라 하였으며, 모든 교과서가 日語로 되어있고, 수업도 日語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말의 사용을 금하고, 日語를 常用하라고 강요하였다.

담임선생이 日인이었으므로 1주일에 한두 시간 있었던 朝鮮語시간만은 韓人교사인 安某선생이 담당하여 가르쳐 주셨다.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이신 安선생께서 어느날 朝鮮語수업을 위하여 우리반에 들어오셨다. 반장의 구령에 따라 학생일동이 선생께 경례를 드리고 착석한 후 조용히 선생님의 수업시작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선생은 수업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교탁 앞에 꿇꿇이 서 계실 뿐이었다. 교실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이렇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선생은 입을 여셨다. “오늘 이 시간부터 조선어의 수업시간은 안하게 되었다.” 말씀은 조용했지만 선생의 얼굴은 비통함에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순간 “와”하고 학생들의 함성이 터지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어린 철부지 때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해 지는 것을 금할 수 없다. 日帝는 이렇게 해서 우리글, 우리말을 學校에서 추방해 버렸다.

2. 마감과 마무리

이렇게 우리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는 우리건설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마감” 또는 “마무리”라는 용어에 대하여 늘 석연치 않음을 느껴왔다. 왜냐하면 나의 알량한 국어지식으로서는 “마감”이란 정해진 어떤 時限의 끝을 뜻하는 것이라든가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마감의 뜻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입학원서의 접수마감, 마감날짜, 마감시간 따위와 같이 말이다. 마감이 건설공사에서의 끝손질인 “finish” 또는 日語의 “시아게(仕上げ)”를 뜻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새는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工事場이나 工場에서, 심지어는 양복가게, 미장원 등에서도 시아게(仕上げ)라는 말이 우리말처럼 통용되어 있었다. 끝손질, 끝마무리 따위와 같이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건설현장에서 시아게(仕上げ)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어 가는 것은 좋았으나, 어찌하여 특히 건축현장에서 마감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마감, 마감공사, 마감공정 등과 같이 마감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마무리, 마무리 공사, 마무리 공정 등과 같이 마무리로 일관하기도 한다. 끝마무리 또는 끝손질이라고 하는 이도 적지 않다. 성수대교사건 이후 신문지상에 요란하게 오르내린 그 많은 관련

* 정회원, 본 학회 前 회장, (재)한국철도기술협력회 고문

기사 속에서도 마감, 마무리, 끝마무리가 共存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건축쪽에서 “마감”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정착된 듯하다. 그러나 토목 쪽에서도 “마무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장에서서는 “마감”도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건설부의 의뢰를 받아 대한토목학회가 제정하고 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용어사전”을 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감”은 없고 “마무리”만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무리 finish, finishing

1. 最後工程을 마무리하는 것
2. 表面을 매끄럽게 加工하는 것

辛鉉植 교수의 여러분의 편지로 된 “건축대사전”(대우출판사 발행)에도 “마감”은 찾아볼 수 없고 “마무리”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무리 finish

건축공사, 제작, 가공 등의 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공정, 또는 그 뒤 매무새. 마무리를 위한 재료, 구법(構法), 공법(工法) 등을 통틀어 이르기 도 함. 끝 손질.

결국 위의 두 용어사전에서도 “마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국어학자 등의 국어사전 몇 개를 펴 보았다.

이희승의 국어 대사전에는

마 감 어떤 한도에서 일의 끝을 막음.

마무리 일의 끝 단속.

이승녕, 남광우의 국어대사전에서는

마 감 1. 일을 마물러서 끝을 냄. 또는 그 단 계나 그때.

2. 정한 기한의 끝.

마무리 일의 마지막 단속. 일의 뒤 매무새.

신기철, 신용철의 새우리말 대사전에는

마 감 1. 계속되던 일을 마물러서 끝을 냄. 또 는 그 단계나 그때.

2. 정한 기한의 끝.

마무리 일의 마지막 단속. 일의 뒤 매무새.

김민수, 고영근의 국어대사전에서는

마 감 1. 계속되던 일을 마물러서 끝내는 것. 또는 그때.

2. 정한 기한의 끝.

마무리 일의 끝 막음.

로 나와 있다. 결국 이들 국어사전에 따르면 더 혼란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희승의 국어사전에서 “마감”은 정한 기한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마무리”가 finish 또는 시아게(仕上げ)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마감”이나 “마무리”보다는 “끝손질” 또는 “끝마무리”가 적절해 보인다. 결국 이 용어는 국어학자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이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머무르다”를 찾아보니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머무르다

1. 물건의 가장자리를 꾸며서 끝을 내다.

2. 일을 끝마칠 때 마지막 손질을 가하다. 일의 뒤끝을 맺다. 일을 바로 잡다.

3. “헤이베”와 “류베”

또 하나 우리 건설 현장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용어 가운데 “헤이베”와 “류베”가 있다. 현장에서 무심코 쓰고 있겠지만 몇 헤이베의 땅, 또는 몇 류베의 콘크리트 하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나 日本이나 옛부터 度量衡의 기본으로 尺貫法을 사용해 왔다. 開花하면서 西洋文物을 받아들일 때, 미터법도 도입되었다. 미터법을 도입할 당시 日人들은 미터(meter, 약 m)을 米突(미돌)로 표기하였다가 나중에 米자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넓이는 平方米, 부피는 立方米로 되었다. 그러나 읽기에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日人들은 이것을 줄여서 헤이베이(平米), 류베이(立米)로 읽었다. 지금도 日人들은 m²로 써 놓고 “헤이베이”로 읽고, m³로 써 놓고 “류베이”로 읽는다. 이것이 日帝시대 日人들과 함께 일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헤이베” “류베”로 들렸던 모양이

다.

오랜 日帝 식민통치하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해 온 우리나라 사람의 귀에도 이 말이 익게 되어, 부지부식간에 후진들에게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는 몇 제곱미터(m²)의 넓이 또는 몇 평방미터(m²)의 땅해야 할 것이고, 또 몇 세제곱미터(m³)의 콘크리트, 또는 몇 입방미터(m³)의 흙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졸업생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말이 나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나간 현장

에서 몇 헤이베 몇 류베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서 나중에야 그 뜻을 알았지만, 처음에는 獨語나 佛語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들 젊은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日語 용어가 수시로 들려오고 또 그들도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푸집 하면 될 것을 가나와꾸(型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교육받은 자네들 젊은이가 이것을 고쳐 나가야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기능공들의 日語 용어에 동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일러준 일이 있다. [4]

콘크리트학회 전문서적 보급안내

콘크리트구조물의 비파괴검사 및 안전진단(산간)

-제2회 기술강좌 교재 보정판-

■ 한국콘크리트학회 편

이 책은 건설현장 기술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파괴시험의 관련 원리 및 적용방법에 대한 최신 기술은 물론, 건축·토목공사용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보수방법과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과 관련 시험방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B5·408面 / 定價 17,000원(회원 10% 할인),
우송시 송료 1,800원 별도 부담

최신 콘크리트공학

■ 한국콘크리트학회 편

이 책은 콘크리트 기본 구성재료의 특성 및 요건 등을 분석하고, 이들 구성재료를 이용한 배합설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기본성질, 혼합, 운반 및 타설과정의 특기사항, 양생, 콘크리트의 시험, 품질관리, 내구성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의 제조 및 제반 특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실고 있다.

- B5·682面 / 定價 15,000원(회원 10% 할인),
우송시 송료 1,800원 별도 부담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단, 보강 및 유지관리

-제4회 기술강좌 교재-

- 집필진 : 윤우현 · Hasegawa Gaoru · 정광량 · 오병환 · 심종성 · 서치호 · 연규석 · 방명석 · 김상식 · 이강희 · 박승범

- B5·368面
- 보급가 : 회 원 18,000원(우송시 송료 2,000원 별도 부담) 비회원 20,000원

에폭시 도막 철근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지침

- 집필진 : 오병환 · 최완철 · 엄주용
- B5·194面
- 보급가 : 10,000원

- 구입방법 : 상기 서적이 필요하신 분은 학회사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라며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은 밑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송금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송금자명 필기 기재요함)
- 은행계좌 : 한일은행(096-132587-01-501)
(예금주 : 한국콘크리트학회)